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놀이복식

임 린* · 이 태 호⁺

北京 清華大學 美術學院 Post Doc. 연구원* · 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

Play Costume from the Mural Paintings of *Goguryeo*

Lynn Yim* · Tae-Ho Lee⁺

Post Doc., Art and Design Lab, Academy of Art & Design, Tsinghua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Art History, Myongji University⁺

(투고일: 2009. 10. 16, 심사(수정)일: 2010. 2. 22, 개재확정일: 2010. 2. 26)

ABSTRACT

The culture of the play of Korean ancient times is well described in the mural painting of *Goguryeo*. The example is people appearing in the play painting of performance, dance, hunting, and acrobatics out of 20 mural painting of genre. Their costume is broadly classified into performance, dance, hunting, and acrobatic costume and can be subdivided according to the types of costume. First, the head gear of play costume reflected the formality and social conditions of play. In the performance and hunting costume, all performers wore *gwanmo*(official hats), which seemed to make it a rule to wear *gwanmo*. *Gwanmo* was borrowed intactly from *Goguryeo* without any changes or decorations, which showed that the status symbolism of head gear was applied intactly to play costume. Second, the play costume of *Goguryeo* enhanced efficiency by blending daily costume with elements and decorations needed for play performance. Specifically the change of length was prominent: the short sleeves of *jeogori*(traditional blouse), the long sleeves of dance costume, and fastening below the knee or putting into the long shoes to shorten the length of *baji*(traditional pants). Finally, as it is well known that there was some differences in the expression modes of daily clothes in *Goguryeo* between *Tonggu* and *Pyeongyang*. Similarly, play costume tried to change costume according to the subject of play but maintained the locality and peculiarity of *Goguryeo* costume. Although performance costume showed many local differences, it also had similarity and peculiarity. In dance costume, long sleeves and patterns which frequently appeared in the *Tonggu* area reappeared in the *Pyeongyang*.

Key words: mural paintings of *Goguryeo*(고구려 고분벽화), culture of the play(놀이문화), play costume(놀이복식)

I. 서론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고구려인의 생활과 풍습, 놀이와 의례, 종교와 내세관 등이 그려져 있다. 고대문화와 관련된 공부를 하는 연구자들에게 매력적인 회화영역이다. 풍부한 내용만큼이나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고구려 고분벽화에 관한 연구는 지금도 세밀하게 연구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¹⁾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놀이복식은 고구려인의 생활상 연구와 더불어서 한국 고대복식을 잘 보여준다. 여기서는 놀이문화라는 새로운 기준에서 그 복식을 살펴볼 기회를 갖고자 한다. 한국 놀이문화에 관한 연구는 한국사, 미술사, 음악사, 민속학 등 인접 연구분야에서 다루어져 왔다.²⁾ 그러나 고구려 고분벽화의 편년체계나 역사적 접근, 내세관과 세계관에 대한 민속학적 접근, 건축양식에 대한 건축사적 접근 등 다양한 연구성과가 축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이문화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편이다. 또한 복식사 측면에서도 놀이복식에 대한 연구는 시작단계라 할 수 있다.

고대사회에서 행해졌던 놀이는 단순한 유흥과 여가행위로만 보기 어렵다. 고대사회일수록 생활과 놀이를 분리하기 쉽지 않다는 관점에서 그렇다.³⁾ 의생활과 놀이문화의 밀접한 관계는 또한 고대사회에 대한 문화사적 접근이 놀이복식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전제를 담고 있기도 하다. 즉, 놀이는 문화 속에서 인간이 생활을 영유하는데 중요한 행위유형으로 의미가 있고, 놀이복식은 고대사회 생활과 결부된 문화의 한 유형으로 가치를 별하기 때문이다.

놀이복식은 고대 한국인의 놀이문화와 관련한 의생활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놀이문화는 기후, 풍토 등 한 민족의 복식이 형성될 때 영향을 받는 민족 고유의 자연여건 이외의 문화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놀이복식에 대한 고찰은 한국 고대복식 구성을 살펴는데 새로운 접근방법이 될 법하다. 또한 놀이복식은 최근들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복식문화의 현대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축제 현장이나 국제문화교류에 활용가능하다는 점에서도 가치를 찾을 수 있겠다.

이 연구에서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한국 고대 놀이문화를 면밀하게 고찰해보며 놀이복식의 유형분류를 시도하고 착용양상을 파악해보겠다. 고대복식 속에서 표현된 놀이복식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아울러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고구려 놀이복식의 재현 및 데이터화를 위한 다음 연구의 기초자료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밝혀둔다.

II. 고구려 고분벽화와 놀이문화

고구려 고분벽화는 고구려시대 장의문화의 산물로 수도였던 통구지방의 국내성과 환도성, 그리고 평양성 부근과 황해도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지금까지 발굴된 벽화고분은 총 106기 정도이고 이들 가운데 생활풍속도가 나타난 고분은 통구지역 11기, 평양지역 34기로 총 45기이다.⁴⁾ 연구대상이 될 놀이그림은 박락이 심하여 식별이 어려운 것들을 제외하면, 20여기에 선명하게 등장한다.

고분벽화에 대한 편년체계는 학자들마다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4C초에서 7C초에 축조된 것으로 본다. 4세기 고분벽화에는 생활풍속 및 인물도가, 5세기에는 생활풍속 그림이 주요 내용으로 부상하면서 인물도는 악화되고 사신도(四神圖)가 서서히 출현하다가, 6세기 후반이 되면 사신도가 중심 화제로 대두된다.⁵⁾ 놀이그림은 생활풍속 그림이 주류를 이뤘던 4-5세기 고분에서 주로 찾아진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놀이그림은 연주, 무용, 수렵, 교예 등 생활풍속도의 일부에 해당한다. 놀이는 일상적인 생활이 아니라 자유스러우면서도 진지하게 명확한 규칙 속에서 무언가로 표현되는 일시적인 활동의 영역이다. 현대에서는 운동선수의 활동, 무대 위의 연기자, 바이올린 연주자, 승려의 제사까지 놀이의 영역에 포함시켰던 J. Huizinga의 놀이개념 및 이를 확장하여 놀이개념을 정의한 R. Cailliois의 이론에 바탕을 둔 것이다.⁶⁾ 또 한 예로 고구려 고분벽화 중 약수리고분, 무용총, 덕흥리고분 등에 나타난 수렵도에는 말을 타고 동물을 겨냥한 궁수의 모습이 승부를 위한 놀이임을 엿볼 수 있다. J. Huizinga가 전쟁까지도 놀이의 범주로 해석하면서 승

<표 1> 고구려 고분벽화 속 놀이그림

위치	추정연대	고분명칭	놀이 유형				놀이 그림 양상
			연주	무용	수렵	교예	
통구 지역	4C말·5C 초기 5C중기	통구12호분	○	○	○		남쪽무덤칸(벽화/모사선화) - 무용, 연주, 수렵
		장천1호분	○	○	○	○	앞칸원쪽벽(벽화/모사도) - 연주, 무용, 교예 앞칸오른쪽벽(벽화) - 춤추는 인물군 안길벽(모사선화) - 거문고 연주
		무용총	○	○	○	○	안칸원쪽벽(벽화/모사도) - 수렵 안칸오른쪽벽(벽화/모사선화) - 춤추는 인물군 안칸안쪽천정(벽화) - 나팔부는 천인
		각저총				○	안칸오른쪽벽(벽화) - 씨름
		마선구1호분		○	○		안칸(모사선화) - 2인 무용 왼쪽결칸 (모사선화) - 수렵
		삼실총			○		첫째칸오른쪽벽(벽화/모사도) - 수렵
평양 지역	4C중·후기	안악3호분	○	○		○	안칸남벽서쪽(벽화/모사선화) - 뿔피리 연주 안칸동벽남쪽(벽화/모사선화) - 수박희 앞칸동벽동쪽(벽화/모사도) - 행렬도 고취악 앞칸동벽북쪽(벽화/모사도) - 행렬도 고취악 안칸동벽(벽화/모사선화) - 연주자, 무용수
		태성리1호분	○	○			안칸벽화(모사선화) - 연주, 무용
		평양역전벽화분	○				앞칸남벽(모사선화) - 고취악 일부
		동암리벽화분			○		벽화조각 - 수렵 장면
		고산동10호분		○			안칸남벽동쪽(모사도) - 3인 무용
		안악1호분	○		○		안칸서벽(벽화) - 수렵 안칸남벽(벽화) - 세운복 연주
		감신풍	○		○		안길서벽(모사선화) - 행렬도 뿔피리 앞칸북쪽천정(모사선화) - 수렵
	5C초기	덕흥리고분	○		○	○	암칸북벽(벽화) - 주인공 위 남녀연주자 앞칸남벽(벽화) - 뿔피리, 멜종연주 앞칸천정(벽화) - 수렵 안칸서벽(벽화) - 마사회
		약수리고분	○		○	○	앞칸서벽·남벽(벽화/모사선화) - 수렵 앞칸동벽·남벽(벽화/모사선화) - 고취악, 교예
		풀청리고분	○			○	앞칸동벽(모사도) - 연주, 교예
	5C중기	대안리1호분	○		○		앞칸북벽동쪽(모사선화) - 고취악 일부 앞칸남벽동쪽(모사선화) - 수렵
		수산리고분	○			○	안칸동벽(벽화) - 멜복, 뿔피리 연주 안칸서벽(벽화) - 교예
		쌍영총	○	○			안길동벽(벽화) - 복 연주, 무용
	6C초기	수렵총			○		안칸서벽(벽화/모사선화) - 수렵

부의 놀이임을 밝힌 점을 떠오르게 한다.⁷⁾ 따라서 고대사회에서 놀이는 가장 기본적인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시작으로 악기연주와 도구를 사용한 놀이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무용, 연주, 수렵, 교예를 놀이의 개념으로 설정해 보았다.⁸⁾ 물론 이들 벽화의 소재는 생활과 놀이라는 측면과 함께 의례적인 행사와도 무

관하지 않다. 그러나 의례에 비중을 두었던 놀이 역시 놀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쁨, 희열, 성취감 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놀이의 범주에 포함된다.

고구려의 놀이문화를 표현한 벽화는 한 벽면을 채우면서 중심제재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른 제재와 함께 어울려 있다. 연주나 교예하는 장면은

행렬과 수렵하는 장면에서 나타하고, 무용은 반주하는 악기나 구경하는 인물과 함께 표현되었다. 고구려 고분벽화 생활풍속도 중 놀이그림이 표현된 고분을 제시하면 <표 1>⁹⁾과 같다.

고구려의 놀이문화는 여흥과 오락을 즐기기 이전 제의와 제천을 위한 의례에서 기원한다. 놀이문화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부여의 영고(迎鼓), 고구려의 동맹(東盟), 예(穀)의 무천(舞天)과 같은 제천의식과 맞닿아 있다. 원시시대의 무예 활동이나 제례의식 모두가 인간의 본질적 차원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면 체계적인 행동 형태의 틀을 벗어난 변형된 행동들은 모두 유희적 요소가 가미된 놀이문화의 형태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다. 특히 삼국시대 놀이문화는 국외의 위진남북조나 국내의 삼국 대립의 상황 속에서 전쟁과 관련된 놀이문화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¹⁰⁾

고구려의 놀이문화는 고문헌의 기록에도 나타난다. 『수서(隋書)』에는 고구려인들이 장례를 치를 때에도 북을 치며 음악을 연주했던 모습이 밝혀져 있다.¹¹⁾ 『구당서(舊唐書)』에는 고구려 무용수의 복식이 자세히 표현되어 있다.¹²⁾ 이백(李白)은 고구려 춤을 보고 ‘고구려(高句麗)’라는 제목의 시에서 “절풍모에 금화를 꽂고(金花折風帽)/백마처럼 천천히 도네.(白馬小遲回)/넓은 소매 휘저으며 활활 춤을 추니(翩翩舞廣袖)/마치 해동에서 새가 날아온 듯(似鳥海東來)”이라고 읊기도 하였다.¹³⁾ 또한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고구려 수렵의 일면이 나타나 있다.¹⁴⁾ 『구당서(舊唐書)』에는 “위기(圍棊), 투호(投壺)의 놀이를 좋아하고 축국(蹴鞠)에 능하다.”고 하여 여러 가지 고구려의 교예가 소개되기도 하였다.¹⁵⁾

이를 반영하듯 고구려의 놀이문화는 <표 1>과 같이 벽화에 표현된 모습처럼 다채롭게 전개되었음을 보여준다. 고구려시대 시공간을 아우렸던 놀이문화는 한사군(漢四郡)의 문제, 장수왕15년(427)의 평양천도, 고구려의 평양에 대한 지배방식, 외래양식의 도입방법 등 고구려가 겪어왔던 역사를 담아내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여겨진다.

III. 고구려 놀이복식의 유형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놀이복식은 놀이그림의 제재에 따라 연주복식, 무용복식, 수렵복식, 교예복식으로 나뉜다. 놀이복식이 표현된 고분벽화의 놀이그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연주복식

연주복식은 안악3호분을 비롯하여 모두 12기에 나타난다. 연주그림에는 안악3호분, 평양역전벽화분, 약수리고분의 고취악대를 비롯하여 21여종의 악기가 등장한다. 관악기로 긴저(장적), 뿔나팔, 작은뿔나팔, 뿔피리, 배소가 보이고, 타악기로 세운북, 말북, 메는북, 메는종, 요, 혼들북, 손북, 소, 현악기로 완함, 현금 등이 나타난다.¹⁶⁾

연주하는 악기의 종류에 따라 연주자의 복식도 달리 표현된 점이 눈에 띈다. 평양지역에 위치한 안악3호분, 덕흥리벽화고분, 수산리벽화고분 등은 벽화의 내용과 화풍에서 유사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¹⁷⁾ 행렬도 고취악대의 모습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림 1>¹⁸⁾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관악기와 타악기를 연주하는 남자 연주자들은 관모를 쓰고, 저고리와 바지, 포를 착용한 모습이다. 현악기를 연주하는 여자 연주자들은 가계를 쓰기도 하고, 본발에 저고리와 치마, 포를 차려입은 모습이다.

2. 무용복식

무용복식은 무용총, 장천1호분의 군무를 비롯하여 독무, 2인무, 3인무 등에 보인다. 무용복식을 살피기 위해 선정된 고분벽화의 놀이그림 중 <그림 2>에 제시한 마선구1호묘의 2인무는 각이 진 관모와 진소매 저고리, 통이 넓은 바지의 무용복식이다. 무용총에서 보이는 군무의 맨 앞에서 통솔을 하고 있는 듯한 무용수는 절풍에 조우를 삽식한 관모를 쓰고, 문양이 있는 저고리와 바지차림이다. 여자 무용수는 저고리와 바지를 착용하거나, 그 위에 포를 입은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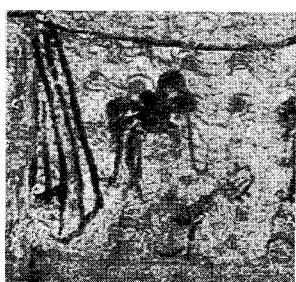
멜종(안악3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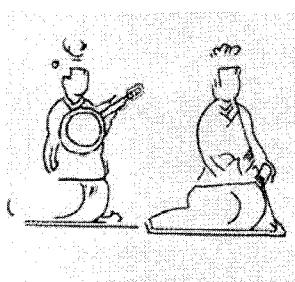
뿔피리/뿔나팔(덕흥리고분)



말복(안악3호분)



완함(덕흥리고분)



완함/긴저(안악3호분)



거문고(장천1호분)

〈그림 1〉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연주복식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 · II, 2000, 도(I) 20, 52, 53, 172, 도(II) 11.



군무(무용총)



2인무(마선구1호묘)



군무(장천1호분)

〈그림 2〉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무용복식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 · II, 2000, 도(I) 297, 358, 도(II)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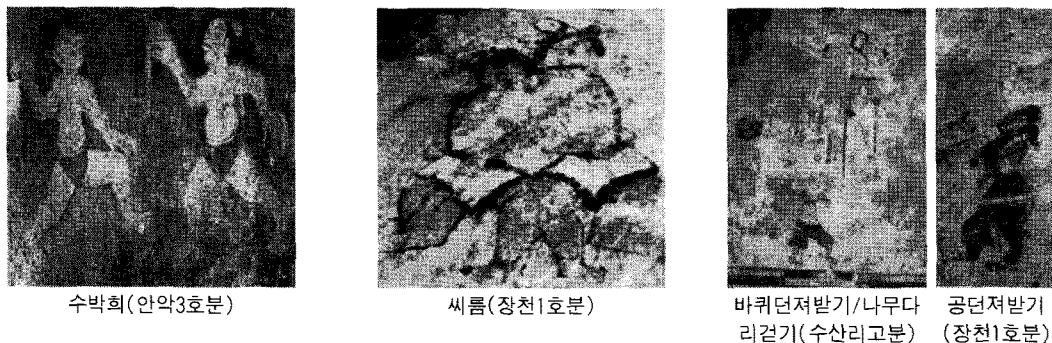
3. 수렵복식

수렵그림은 말을 타고 활시위를 당겨 짐승을 쫓는 장면으로 그려진다. 날렵한 움직임과 빠른 판단력, 체력을 기르기 위한 남성들의 활동적인 취미이자 군사훈련, 생산활동의 목적을 포함한다. 모두 관모를

착용하였으며, 저고리와 바지를 입었다. 〈그림 3〉은 고분벽화에 나타난 수렵복식 중 대표적인 수렵복식의 모습으로 수렵의 활동성을 고려해 저고리의 소매를 걷어 올리거나 여민 형태이다. 바지 역시 폭이 넓거나 좁은 바지, 바지부리에 가선이 있는 바지, 무릎 길이의 바지 등 다양한 양상이다. 신은 주로 화를 신



〈그림 3〉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수렵복식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 · II, 2000, 도(Ⅰ) 326, 356, 도(Ⅱ) 100.



〈그림 4〉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교예복식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 · II, 2000, 도(Ⅰ) 49, 239, 도(Ⅱ) 10, 12.

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교예복식

교예그림은 수박희, 씨름, 바퀴 던져받기, 공과 막대 던져받기, 나무다리 걸기, 바퀴 던져받기, 칼재주, 방울받기 등이다. 남자복식을 위주로 한 교예복식은 수박희, 씨름¹⁹⁾과 같이 상의를 벗고 짧은 하의만을 입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관모를 쓰고 저고리와 바지를 입은 모습, 무릎길이의 바지를 입은 모습 등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차림이다. 저고리도 소매와 여분이 매우 적다. 신은 신지 않았거나, 긴 화(靴)나 이(履)를 신은 모습 등 다채롭다. 고분벽화에 나타난 교예복식 중 수박희, 씨름, 공던져받기 등에 착용한 모습을 〈그림 4〉에 제시하였다.

IV. 놀이복식의 특성

놀이그림에 표현된 복식의 종류와 형태를 중심으로 놀이그림을 분류하고, 유형화하여 두식형태, 복식 구성 등 놀이복식 착용양상에 따른 특성을 분석해보았다.

1. 놀이별 복식의 형태분류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놀이복식은 놀이의 양식에 따라 일정한 특성을 보인다. 박라이 심하여 식별이 어렵거나 자료수집 과정에서 인물이 누락되었을 여지가 있으나, 연구대상이 된 놀이그림 속 인물들의 복식유형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고분벽화에 나타난 놀이복식 유형

놀이복식 유형	두식유형			복식유형			
	관모/가계	본발	저고리/바지	포/저고리/바지	포/저고리/바지/치마	바지	저고리/치마
연주복식	남자복식	40		36	4		
	여자복식	6	3			6	3
무용복식	남자복식	9	5	14			
	여자복식	2	9	6		5	
수렵복식	남자복식	47		47			
교예복식	남자복식	10	14	16			8

-숫자는 인물수를 나타냄

〈표 3〉 놀이별 복식의 유형분류

남자복식	유형1 (저고리/바지)	유형2 (포)	유형3 (바지)	남자 놀이복식 유형
유형 I (관모)	○	○		· 유형 I -1(관모/저고리/바지) · 유형 I -2(관모/포/저고리/바지)
유형 II (본발)	○		○	· 유형 II -1(본발/저고리/바지) · 유형 II -3(본발/바지)
여자복식	유형1 (저고리/바지)	유형2 (포/치마)	유형3 (저고리/치마)	여자 놀이복식 유형
유형 I (가계)		○	○	· 유형 I -2(가계/포/저고리/치마/바지) · 유형 I -3(가계/저고리/치마)
유형 II (본발)	○	○		· 유형 II -1(본발/저고리/바지) · 유형 II -2(본발/포/저고리/치마/바지)

연주복식과 무용복식은 남녀복식이 모두 나타났고, 수렵과 교예의 경우는 놀이의 특성상 남자복식만을 살피게 해준다. 이를 기준으로, 두상에 관모나 가계를 착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유형 I과 II로 복식의 형태를 분류해 보았다. 즉, 남자는 관모, 여자는 가계를 착용하였으면 유형 I, 본인의 두발만으로 나타나면 유형 II라 하였다. 또한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착용빈도가 가장 많았던 저고리와 바지를 기본복식으로 하여 이를 유형1로 분류하였고, 남자, 여자 기본복식에 포를 착용하는 경우 유형2로 구분하였다. 여자복식의 경우 포를 착용할 때에는 치마를 함께 착용하고 있어 이를 유형2에 포함하였음을 밝힌다. 예외적으로 기본복식에서 벗어나 상의를 탈의하고 바지만을 입는 남자복식, 저고리와 치마를 입은 여자복식의 경우는 각각 유형3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조합하여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놀이복

식을 〈표 3〉처럼 분류해 보았다. 그 결과 남자 놀이복식은 유형 I -1(관모/저고리/바지), 유형 I -2(관모/포/저고리/바지), 유형 II -1(본발/저고리/바지), 유형 II -3(본발/바지)으로 나뉜다. 그리고 여자 놀이복식은 유형 I -2(가계/포/저고리/치마/바지), 유형 I -3(가계/저고리/치마), 유형 II -1(본발/저고리/바지), 유형 II -2(본발/포/저고리/치마/바지)로 세분된다.

1) 연주복식

연주복식의 유형은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남자복식 유형 I -1, 유형 I -2, 여자복식 유형 I -2, 유형 I -3, 유형 II -2로 구분된다. 남자 연주복식으로 관모를 쓰고 저고리, 바지를 입은 유형 I -1이 월등히 많다. 남자 연주자는 관악기와 타악기를, 여자 연주자는 현악기를 위주로 연주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남자 연주자의 현악기 연주는 통구12호분 2인의

무용수를 위한 거문고 연주자에서 보이는데, 물방울 문양이 있는 저고리와 바지만 확인될 뿐 관모와 얼굴이 박락되어 있다. 그러나 여자 연주복식이 저고리와 바지로 이루어진 예가 없었던 점, 남자 연주복식의 경우 모두 관모를 착용했던 점으로 미루어 남자 복식 유형 I-1로 추정된다. 이렇게 보면 놀이그림 중 유일하게 문양이 있는 저고리, 바지를 착용한 남자의 연주복식이 된다. 무용총 벽화에는 뾰퍼리를 부는 남자 연주자와 거문고를 타는 여자 연주자가 천상의 인물로 천정에 그려져 있다. 이를 각각 남자복식 유형 I-1, 여자복식 유형 I-2로 분류하였으나, 현실을 표현한 무용총의 다른 복식과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태성리1호분, 감신총, 덕흥리, 쌍영총 등은 박락이 심하여 세세한 확인이 어렵다. 그러나 태성리1호분은 안악3호분과 유사한 구성 및 양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²⁰⁾ 안악3호분 연주자를 토대로 가계를 하고 포와 치마를 착용한 여자 연주자로 간주해 보았다. 감신총에는 山形관모를 착용한 연주자가 뾰퍼리를 연주하는 장면이 나타난다. 박락이 심하여 복식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없었으나, 것의 형태, 소매통의 너비, 말을 타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남자복식 유형 I-2로 보았다. 덕흥리고분은 <그림 1>에 보이듯이 완함 여자 연주자의 하의를 살필 수 없었다. 하지만 가계를 착용하였다는 점과 다른 인물들의 복식과 연계할 때 저고리와 치마를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쌍영총 연주자는 타악기인 북을 치며 행렬 중에 그려진 점으로 미루어 유형 I-1로 추정된다.

2) 무용복식

무용복식은 남자복식 유형 I-1, 유형 II-1, 여자복식 유형 II-1, 유형 II-2로 구분된다. 무용복식의 분포는 통구지역 고분벽화에 주로 나타난다. 안악3호분과 태성리1호분을 제외하면 모두 긴소매 상의와 물방울 무늬 같은 문양이 있다. 통구12호분, 고산동10호분의 경우 박락이 심하여 저고리, 바지를 착용한 무용수의 관모와 얼굴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무용총과 고산동10호분의 여자 무용복식이 포와 치마를 착용한 점, 선행연구에서 무용총의 저고리와 바지를 착용한

무용수를 남자로 간주했던 점,²¹⁾ 남자 무용수가 군무를 이끌거나 1인이나 2인무를 출 때 관모를 착용했던 다른 벽화의 예에 따라 남자 무용수라면 관모를 착용했을 것으로 보고 남자복식 유형 I-1로 분류해 보았다. 물론 장천1호분에 보이듯 여자 무용복식도 저고리와 바지여서 통구12호분, 무용총, 고산동10호분 무용복식의 성별구분은 논의의 여지가 남는다. 또한 쌍영총 고분벽화에는 칼을 들고 춤을 추는 인물상이 있다고 하였으나 확인되지 않는다.²²⁾

3) 수렵복식

수렵복식은 축조연대와 상관없이 관모, 저고리, 바지, 화를 착용하는 모습으로 남자복식 유형 I-1로 분류된다. 대안리1호분의 경우 박락탓에 관모 식별이 어려웠으나, 모사도의 실루엣과 다른 고분벽화의 경우로 미루어 관모를 착용하였을 것이다. 수렵복식에는 다양한 관모가 출현한다. 조우를 삽식한 절풍, 절풍, 전, 립이 보이며, 조우의 모습도 다채롭다. 절풍이나 전 등이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절풍과 조우삽식절풍, 전과 조우삽식절풍은 함께 벽화에 그려져 있다. 또한 벽화의 훠손으로 판별이 어려웠던 대안리1호분과 무용총을 제외하고 절풍이 표현된 수렵도 인물은 모두 물방울무늬 같은 문양이 있는 저고리와 바지 차림이다. 전과 립은 안악1호분 등에 단독으로 나타나고, 문양이 보이지 않는다.

4) 교예복식

교예복식은 남자복식 유형 I-1, 유형 II-1, 유형 II-3으로 나뉜다. 유형 I-1은 평양지역에 많이 나타나고, 유형 II-3은 통구지역에서 출현빈도가 높다. 교예복식에는 포를 입은 경우가 없다. 이와 함께 관모를 쓰지 않은 교예복식도 통구와 평양지역에 두루 나타난다. 동암리벽화분에는 무용과 교예그림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지만,²³⁾ 수렵장면 이외에 확인되지 않는다.

2. 놀이복식의 착용양상

놀이복식은 놀이의 성격에 따라 두식과 복식의 일정한 유형을 보였다. 고구려의 일상복식을 놀이복식

차이를 보여 논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진서(晉書)』의 기록을 바탕으로 책의 일종으로 분류되기도 한³⁰⁾ 山形관모는 형태의 차이가 있어 제고의 여지가 남아 있지만, 상류계층이 착용하는 관모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나관과 山形관모의 착용자는 연주자를 통솔하는 관리의 모습으로 견을 착용한 연주자들보다 높은 신분을 드러내는 효과가 있다.

무용복식 유형 I-1의 남자관모는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조우삽식절풍과 방형관모이다. 조우삽식절풍은 무용총의 군무에서 우두머리 무용수가 쓰고 있다. 무용이 율동을 통해 표현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절풍³¹⁾에 삽입된 조우는 무용의 동작과 어울리면서 풍부한 리듬감을 더해주었을 것이다. 방형관모³²⁾는 독무와 2인무에 착용되었다. 논의의 여지는 있지만, 무용총, 삼실총 등에서 묘주가 방형관모를 착용하고, 묘주 이외의 인물들이 조우삽식절풍을 쓴 것으로 보아 방형관모는 조우삽식절풍보다 높은 계층의 관모로 볼 수 있다. 장천1호분과 마선구1호분 무용수들이 방형관모를 착용하고 있는 것은 무용의 품격을 짐작하게 해 준다.

수렵복식 유형 I-1에는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절풍, 조우삽식절풍, 전, 립의 관모가 보인다. 특히, 절풍, 조우삽식절풍은 무용복식과 마찬가지로 역동적인 수렵의 성격을 고려한 관모의 차용으로 볼 수 있다. 수렵은 고분벽화에 나타난 놀이 중 상류계층이 직접 참여한 형태로, 조우를 삽식한 절풍은 상류계층³³⁾의 활동적 관모로 볼 수 있다. 또한 전은 무용총 벽화의 경우 조우삽식절풍과 함께 한 화면에 등장하여 낮은 계층의 관모임을 보여준다. 수렵에서 견의 사용은 연주복식에서와 같이 실용성과 신분표현의 성격을 갖고 있다. 립은 감신총과 안악1호분에서 나타난다. 수렵활동에서만 확인되어 상류계층의 수렵을 위한 특수관모로 보인다.

교예복식 유형 I-1에 착용한 관모는 〈표 5〉에 제시한 전과 책이다. 교예복식에서 전의 사용은 연주, 수렵복식에서와 같은 성격을 띤다. 교예복식에서는 책의 사용이 흥미롭다. 책은 복식사에서 그 원류와 형태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는 관모로³⁴⁾ 일반적으로 후두부가 올라온 관모를 책으로 보는데, 고위관리

뿐만 아니라 무관복식으로 착용되었다. 안악3호분 행렬도에서 칼과 활을 들고 교예를 부리는 인물이 책을 사용함으로써 교예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무예적 성격을 관모로 표현하고 있다.

남자 놀이복식에서 관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는 무용복식(유형 II-1)과 교예복식(유형 II-1, 유형 II-3)에 나타난다. 본발일 경우 저고리, 바지를 입으며, 수박회, 씨름과 같은 교예놀이에서는 짧은길이 바지와 상투로 간소한 복식을 하였다. 무용복식에서 본발은 춤사위 표현을 위한 자연스러운 두발표현을 위한 것으로 생각되며, 교예복식에서는 쌍계를 한 나이어린 교예인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여자의 가계는 남자의 관모에 비견되는 것으로³⁵⁾ 의례성을 갖으며, 포나 치마를 착용한 유형 I-2, 유형 I-3의 연주복식에서 보인다. 저고리, 바지 유형(유형 II-1)에서는 가계의 모습이 없다. 그러나 장천1호분 거문고 연주자 복식에서는 포와 치마(유형 II-2)를 입고 있음에도 가계를 하지 않아 지역성과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 무용복식 역시 유형 II-1, 유형 II-2에서 가계 착용을 살필 수 없다.

2) 유형별 복식구성

남자 놀이복식은 저고리와 바지(유형 I-1, 유형 II-1), 저고리와 바지 위에 포를 덧입은 구성(유형 I-2), 짧은길이 바지만을 입고 있는 모습(유형 II-3)으로 나타난다. 특히 저고리와 바지 구성은 저고리의 소매와 바지 길이, 너비, 문양 등에서 놀이마다의 특성을 보인다. 저고리와 바지 구성은 긴소매 저고리/긴길이 바지, 짧은길이 저고리/긴길이 바지, 짧은소매 저고리/짧은길이 바지로 대별되었다. 논의의 편의상 각각의 유형을 1-①, 1-②, 1-③로 구분하고 너비, 문양, 가선 등에 대한 논의를 더하고자 한다.

연주복식에서 남자의 저고리, 바지 구성은 〈표 6〉과 같이 유형 I-1-①, 유형 I-1-②, 유형 I-1-③로 다양하다. 관모는 모두 전을 착용하고 있어 동일하다. 저고리 소매, 바지 폭의 너비가 길이에 관계없이 모두 좁다. 또한 타악기 연주자들의 저고리 소매길이와 바지길이가 짧았다. 짧은바지는 긴 화(靴) 속에 바지를 집어 넣어 여민 것처럼 보인다.

〈표 5〉 유형별 두식형태

놀이복식 유형		두식형태				
연주 복식	남자복식 (유형 I -1:건/유형 I -2:나관·山形관모) 여자복식 (유형 I -2·유형 I -3:가계/유형 II -2:본발)	건 나관 山形관모 가계 본발				
무용 복식	남자복식 (유형 I -1:조우삽식절풍·방형관모/유형 II -1:본발) 여자복식(유형 II -1·유형 II -2:본발)	조우삽식절풍 방형관모 본발 본발				
수렵 복식	남자복식 (유형 I -1:조우삽식절풍·절풍·건·립)	조우삽식절풍 절풍 건 립				
교예 복식	남자복식 (유형 I -1:건·책/유형 II -1·유형 II -3:본발)	건 건 책 본발 본발				

무용복식은 유형 I -1-①, 유형 II -1-①로 나타난다. 무용의 특성상 모든 저고리의 소매길이가 매우 길다. 한국무용은 상체 중심의 무용으로 팔 동작의 효과적인 표현을 위해 긴소매가 활용되었을 것으로 본다.³⁶⁾ 다만, 방형관모를 착용한 경우 조우삽식절풍과 본발인 경우보다 바지의 너비가 매우 넓다. 이는 관모의 계층구분과 일치한다. 또한 물방울 형태의 문양이 표현되었으며, 저고리에서는 가선과 소매의 덧댄 장식을 볼 수 있다.

수렵복식은 약수리고분(유형 I -1-③)을 제외하고, 유형 I -1-②의 형태만 나타난다. 소매길이가 짧은 저고리는 활동성을 고려해 겉어 올리는 것으로 보기도 하나³⁷⁾ 무용총에서는 토시와 같은 보조수단을 이용한 모습이 보인다. 또한 모두 긴길이 바지를 착용하였으나, 너비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약수리고분에서는 바지에 가선을 덧댄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바지길이가 짧지만 폭이 매우 넓은 바지형태도 있다. 일반복식과 다른 수렵복식의 활동성을 고려한 변형으로

보인다.

교예복식은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유형 I -1-①, 유형 I -1-③, 유형 II -1-①, 유형 II -1-③의 형태를 보였다. 즉, 관모의 착용유무에 관계없이 동일유형의 저고리, 바지가 입혀졌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 짧은 소매 저고리와 짧은길이 바지를 착용하여 교예의 활동성을 살렸다. 특히 짧은소매의 저고리는 겉어 올렸다가 보다 짧은소매로 제작된 듯 보였다.³⁸⁾ 또한 무릎길이 바지는 짧은 바지인 곤(褲)으로 보기도 하나,³⁹⁾ 벽화에서 보면 검정색의 각반(脚紺)⁴⁰⁾ 같은 보조수단이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수산리벽화 교예인의 경우 짧은 바지 아래 황색의 정강부분에는 발목까지 선이 그려져 있어 무엇인가를 착용한 듯하다. 이것을 경의(脛衣)라고 보기도 하는데,⁴¹⁾ 여밀때 필요 한 매듭이나 끈의 표현이 없고, 신과 종아리의 표현이 통일성 있게 그려져 화를 신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외에 남자 놀이복식에는 포를 덧입은 구성(유형 I -2)과 짧은길이 바지만을 입는 구성(유형 II -3)이

〈표 6〉 유형별 복식구성

놀이복식 유형		복식구성				
연주 복식	남자복식 (유형 I -1-①/유형 I -1-②/유형 I -1-③/ 유형 I -2) 여자복식 (유형 I -2/유형 I -3/유형 II -2)	 I -1-①	 I -1-②	 I -1-③	 I -2	 I -3
무용 복식	남자복식 (유형 I -1-①/유형 II -1-①) 여자복식 (유형 II -1-①/유형 II -2)	 I -1-①	 I -1-①	 II -1-①	 II -2	 II -2
수렵 복식	남자복식 (유형 I -1-①/유형 I -1-②/유형 I -1-③)	 I -1-①	 I -1-①	 I -1-②	 I -1-②	 I -1-③
교예 복식	남자복식 (유형 I -1-①/유형 I -1-②/유형 II -1-③/유형 II -3)	 I -1-①	 II -1-③	 II -1-③	 II -3	 II -3

있다. 연주복식에 나타난 유형 I -2의 포는 나관, 山形관모와 함께 높은 신분을 표현한다. 교예복식의 유형 II -3은 매우 짧은길이 바지로 수박회와 씨름하는 모습에서 보인다. 단고(短袴) 혹은 독비곤(犢鼻褲)이라고도 하는 이 복식은 현대의 속옷과 같은 매우 짧은 바지류를 말한다.⁴²⁾ 수박회는 네모난 천을 주름 잡아 앞뒤를 가리도록 가랑이 사이로 통과시켜 착용한 모습으로, 벽화에도 바지의 주름이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다.⁴³⁾ 씨름할 때 착용된 바지는 옆선을 봉제하여 착용시 일반바지와 같이 가랑이에 각각 다리를 넣어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살바로 보이는 끈의 흔적이 표현되어 있다.

여자 놀이복식에는 저고리와 바지 구성(유형 II -1-③), 저고리와 바지, 치마 위에 포를 덧입은 구성(유형 I -2, 유형 II -2), 저고리와 치마 구성(유형 I -3)이

있다. 저고리와 바지구성은 무용복식에서 나타난다. 남자복식과 같이 긴소매 저고리와 물방울 무늬 문양이 특징이다. 포를 덧입는 경우는 치마를 함께 받쳐 입었다. 연주복식과 무용복식에서 포 아래 치마의 주름이 가늘게 표현되어 있는 경우 문양이 함께 그려져 있으며, 가계를 하지 않았다. 저고리와 치마를 입은 연주복식도 살필 수 있다.

3) 놀이복식 유형과 지역성

고구려 고분벽화 놀이복식은 유형에 따라 지역성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먼저, 연주복식은 통구지역과 평양지역에 따라 유형, 두식형태, 복식구성 등에서 현저한 지역적 차이를 보인다. 남자 연주복식에서 관모는 평양지역에서만 착용하였고, 포(유형 I -2) 역시 평양지역에 제한

〈표 7〉 고분별 두식유형과 복식구성

위치	추정 연대	고분명칭	연주복식		무용복식		수렵복식	교예복식 남자복식
			남자복식	여자복식	남자복식	여자복식		
통구 지역	4C말 · 5C초기	통구12호분	?/ I -1-① ◎●		?/ I -1-① ◎●		절풍/ I -1-②○●	
		장천1호분		본발/ II -2■●	방형관모/ I -1-①○●	본발/ II -1-①○●	절풍 · 조우절풍/ I -1-② ○○●	건/ I -1-①○ 본발/ II -1-①○ II -3씨
		무용총	?/ I -1-①○?	가계/ I -2?	조우절풍/ I -1-①○● 본발/ II -1-①○●	본발/ II -2■●	건 · 조우절풍/ I -1-②○○	본발/ II -3수
	5C중기	각저총						본발/ II -3씨
		마선구1호분			방형관모/ I -1-①○●		절풍/ I -1-②○●	
		삼실총					조우절풍/ I -1-②○	
평양 지역	4C중 · 후기	안악3호분	전/ I -1-①○ 전/ I -1-③○ 나관/ I -2○	가계/ I -2□ 가계/ I -3□	?/ I -1-①○			책/ I -1-①○ 본발/ II -3수
		태성리1호분		I -2?		?/ II -2□		
		평양역전벽화분	전/ I -1-①○ 나관/ I -2?					
		동암리벽화분					절풍/ I -1-② ○○●	
	5C초기	고산동10호분			?/ I -1-① ◎● 본발/ II -1-①○●	본발/ II -2■●		
		안악1호분	건/ I -1-?				립/ I -1-②○	
		감신총	山形관모/ I -2?				립/ I -1-②?	
	5C중기	덕흥리고분	전/ I -1-①○	가계/ I -3?			전/ I -1-②○	건/ I -1-①○
		약수리고분	전/ I -1-①○				전/ I -1-②○	본발/ II -1-③○
	5C후기	필청리고분	전/ I -1-①○					건/ I -1-①○ 건/ I -1-②○
		대안리1호분	전/ I -1-①○				절풍/ I -1-②?	
		수산리고분	전/ I -1-②○					건/ I -1-③○ 본발/ II -1-③○
	6C초기	쌍영총	?/ I -1-?		?/ I -1-?			
	6C초기	수렵총					조우절풍/ I -1-③○●	

- ○넓은바지/◎좁은바지/□넓은주름치마/■잔주름치마/●문양/수:수박희/씨:씨름

적으로 나타난다. 평양지역에서 착용된 관모의 형태도 다양하여 건(유형 I-1)과 나관, 山形관모(유형 I

-2) 등을 볼 수 있다. 또한 저고리와 바지는 소매길이, 바지길이를 조절하여 연주하는 악기와 상황에 따

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평양지역에는 유형 I-1-①, 유형 I-1-②, 유형 I-1-③의 저고리와 바지 유형이 등장하는 반면, 통구지역은 유형 I-1-①의 진소매 저고리와 긴길이 바지만이 보인다. 여자 연주복식의 경우에도 통구지역은 가계를 착용하지 않고, 잔주름치마에 문양이 있는 포를 입고 있으나, 평양지역은 가계를 착용하고, 주름이 넓은 치마를 입고 있어 확연한 차이가 있다.

무용복식은 남자 무용인의 관모착용이 통구지역에 서만 보인다.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통구지역에서는 조우삽식절풍과 방형관모를 쓰고 있다. 그러나 통구지역 특징적 복식으로 알려진 가선이 된 직령교임의 소매가 긴 저고리와 포, 물방울 문양, 포와 함께 착용하는 잔주름 치마가 5C 평양지역 고산동10호 분에 재현되었다. 두 지역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수렵복식은 <표 7>에 제시한 바와 같이 관모, 짧은소매 저고리, 긴길이 바지(유형 I-1-②)가 통구지역과 평양지역에 고루 나타난다. 바지의 너비도 넓은 바지와 좁은 바지가 두 지역에서 모두 보이며, 물방울 문양 역시 통구지역과 평양지역에서 살필 수 있다. 그러나 수렵복식에 착용된 관모가 통구지역에서는 절풍, 조우삽식절풍이 주류를 이룬 반면, 평양지역에서는 견, 텁의 착용이 많다. 또한 절풍과 조우삽식절풍을 착용할 때 복식에 문양이 주로 나타나며, 견과 텁을 착용할 때에는 복식에 문양이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교예복식은 짧은길이 바지만을 입고 연행하는 수박회가 통구지역 무용총과 평양지역 안악3호분에 나타난다. 또한 견을 착용하고 저고리와 바지를 착용하는 모습이 두 지역 고분벽화에서 발견된다. 다만, 짧은소매 저고리와 짧은길이 바지의 착용(유형 I-1-③)은 평양지역에서만 살필 수 있다.

이렇듯 연주복식을 제외한 통구지역과 평양지역 놀이복식은 상당한 유사성을 갖는다. 이는 4세기 중반 평양지역 고분벽화에서 표현되기 시작한 놀이그림이 평양천도(427) 이후 5세기 중반 통구지역에 집중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통구지역과 평양지역의 문화교류를 의미한다.⁴⁴⁾ 연주복식에서 지역성이 강한

것은 행렬도와 같은 고취악대 그림 때문으로 생각된다. 평양지역은 백제와의 접경지역으로 묘주가 군대의 사열과 고취악대를 동원한 출행이 잦아 평양지역 고분에서 주로 행렬도가 그려졌고, 이로 인해 현악기 위주의 통구지역 연주복식은 평양지역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V. 결론

고구려 고분벽화의 놀이복식은 고구려의 놀이에서 입던 고구려인의 옷으로 놀이문화의 한 축을 이룬다. 일상복식에서 차용한 관모는 놀이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격식과 사회상을 상징적으로 담았고, 일상에서 입던 저고리와 바지는 놀이 안에서 필요에 따라 변형시켰다. 고구려의 복식과 놀이는 상호 유기적이고 능동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고구려적 색채를 그대로 간직한 것이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놀이복식의 특성은 두식에 반영된 신분적 격식, 복식의 변형과 효율성, 지역성과 고유성 등이 적절히 드러나 있다.

1. 연주복식과 수렵복식에서는 모든 연행자가 관모를 착용할 정도로 남자는 관모 착용을 원칙으로 한 듯하다. 놀이복식에 착용된 관모는 고구려시대 관모에 어떠한 변형이나 수식을 더하지 않고 차용되어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놀이복식 유형별로 나타난 관모는 놀이의 성격과 착용자의 신분, 사회상 등을 그대로 반영한 셈이다.

가장 보편적인 관모였던 견은 머리가 훌려내리는 것을 방지하고 간편하게 수발하는 실용적 측면과 책이나 절풍에 비하여 낮은 신분을 나타낸다. 행렬도의 고취악대는 의례적 역할과 활동성을 고려하여 견이 착용되어 있다. 반면, 포를 입고 말을 타면서 고취악대를 지휘했던 연주자는 나관이나 山形관모를 착용하여 그 지위를 나타낸 것 같다. 또한 남성의 관모에 견주어 여성의 가계 착용이 연주복식에 나타난다. 이는 고구려 사회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연행하는 놀이를 중요시 다루었음을 반증한다. 무용복식에서 착용하였던 방형관모는 높은 계층의 관모로 무용을 연행 할 때 착용하여 격식과 권위를 드러냈을 것으로 짐

작된다. 또한 신분에 따라 조우를 삽식하여 구별하였던 절풍은 고구려의 무풍적 성격을 잘 나타낸다. 봄을 도구로 하여 표현되는 무용과 용맹한 기상이 요구되던 수렵은 조우삽식절풍을 관모로 선택함으로써 놀이의 성격과 품격을 효과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교예복식에서는 이례적으로 책을 착용한 칼재주를 부리는 교예인이 보인다. 칼을 가지고 교예를 펼쳤던 교예인에게 무관의 관모인 책을 허용한 것은 놀이복식에 함축시키고자 했던 고구려인의 무인기상의 의도가 여실히 드러난다.

2. 놀이복식은 일상의 고구려복식을 놀이연행에 필요한 요소와 장식을 가미하면서 변화를 주고, 효율성을 높인 듯하다. 관모를 변형없이 놀이복식에 그대로 착용된 것과 달리, 실용성을 추구한 것이다.

길이의 변화가 가장 뚜렷하다. 연주복식, 수렵복식, 교예복식에 나타난 저고리의 짧은 소매는 활동을 위해 걷어 올린 것으로 보기도 하나, 행렬도 연주자의 경우 저고리의 소매를 걷고 행렬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적합한 차림새라고 보이지 않는다. 연주자들이 모두 비슷한 길이로 소매를 걷고 있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설명이 부족하다. 이는 소매의 길이가 짧은 저고리를 제작하여 입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수렵그림에서는 저고리의 짧은 소매를 만들기 위한 보조도구가 확인되어 저고리의 길이를 조절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애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무용복식의 긴소매는 저고리와 포의 기본복식에서 단지 소매만을 늘려 중간에 장식선을 곁들이거나 수구의 가선을 넓히는 정도이다. 한대(漢代) 무용복식에서 보이는 과장되게 소매의 길이를 늘리거나 수구를 확대시키는 모습이 아닌 자연스러운 변형을 보여준다. 바지 역시 길이에서 변형을 보인다. 보조수단을 이용하여 바지부리를 편리하게 여미기도 하였으며, 긴 바지의 도련을 무릎 아래까지 올라 온 신(靴) 속에 여며 넣어 간편하면서도 효율적인 변화를 추구하였던 듯하다.

3. 고구려 고분벽화는 고분이 위치한 통구지역과 평양지역의 복식표현 양식에서 지역성을 보인다. 고구려 복식에 표현된 고구려적 요소와 외래적 양식 속에는 고구려가 겪어 왔던 역사, 지리적 위치와 밀

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복식유형에 따른 지역적 차이를 살펴보면 연주복식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남자 연주자의 포 착용(유형 I-2)과 여자 연주자의 저고리, 치마 착용(유형 I-3)이 평양지역에만 보인다. 또한 평양지역 여자 연주복식에서 저고리와 넓은주름 치마 구성이 통구지역에 보이지 않는 것도 차이점이다. 무용복식은 한삼을 불인듯이 긴소매 저고리 착용, 물방울 무늬 문양, 잔주름 치마가 통구지역과 평양지역에서 모두 나타났다. 수렵복식은 착용된 관모의 유형이 지역적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지만, 관모, 짧은소매 저고리, 긴길이 바지(유형 I-1-②)가 두 지역에서 고루 나타난다. 교예복식의 짧은길이 바지가 통구지역과 평양지역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점도 흥미롭다. 따라서 연주복식을 제외하고는 무용복식, 수렵복식, 교예복식에서 지역적 유사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평양천도(427) 이후 5세기 중반 통구지역과 평양지역의 문화교류를 살필 수 있는 부분이다.

고구려 놀이복식은 과장되지 않고 부드럽게, 실용적이면서 아름답게 고구려 복식의 실루엣을 살려냈다. 검정, 흰색으로 된 가선은 너비를 조절하며 복식의 색채를 돋보이게 하는 최고의 미감을 보여준다. 특특 뛰는 듯한 문양은 놀이 연행자의 모습에 생동감을 불어 넣었다. 고구려 고분벽화 속 놀이복식은 지금의 축제현장에 당장이라도 뛰쳐나와 한바탕 놀이를 벌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완벽한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다.

참고문헌

- 1) 이태호 (1984). 삼국시대의 미술회화. 한국미술사. 서울: 대한민국예술원.
이태호, 유홍준 (1995). 고구려고분벽화와 삼국시대 회화. 고구려고분벽화 해설. 서울: 풀빛, pp. 5-16.
유홍준, 이태호 (1997) 고구려 벽화고분의 발굴. 한국미술사의 새로운 지평을 찾아서. 서울: 학고재, pp. 228-286.
- 2) 이태호 (2007). 평양지역 8기의 고구려 벽화고분-벽화의 내용과 화풍-. 국립문화재연구소·남북역사학자협의회, 남북공동 고구려벽화고분 보존실태 보고서. 제1권 조사보고, pp. 86-111.
- 3) 주재걸 (1982). 벽화무덤을 통해 본 고구려의 교예. 역사과학, 2.

- 임재해 (1995). 민속놀이의 주술적 의도와 생산적 구실. *민속학회*, 27(1).
- 고승길 (1996). 고분벽화에 나타난 고구려의 곡예와 아시아의 곡예. *연극연구*, 10.
- 정연학 (1996). 출토문물을 통해 본 중국의 씨름과 手搏. *비교민속학*, 13.
- 이애주 (1997). 고구려 춤의 민속학적 연구. *고구려연구*, 3.
- 이중구 (1998). 한국전통사회 놀이문화의 변천과정. *관광학연구*, 22(2).
- 황옥철, 심재영 (1999). 우리나라 놀이문화의 변천사 연구. *움직임의 철학*, 7(1).
- 전경욱 (2004). 벽화를 통해서 본 고구려의 놀이문화. *고구려연구*, 17.
- 전미선 (2005).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놀이문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영미 (2007). 고대 문헌에 나타난 고구려 춤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J. Huijzinga (1955). *Homo Ludens, A Study of the play Element in Culture*. 김윤주 역 (2008). *호모 루덴스*. 서울: 도서출판 까치, p. 13.
- 4) 전호태 (2003). 고구려 고분벽화의 세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p. 304.
- 5) 유홍준, 이태호, 앞의 책, pp. 245-246.
- 6) 김윤주 역. 앞의 책, pp. 13-46.
R. Cailliois (1958). *LES JEUX ET LES HOMMES*. 이상률을 역 (2003). *놀이와 인간*. 서울: 문예출판사, pp. 25-34.
- 7) 김윤주 역. 앞의 책, pp. 66-67, 78-79.
- 8) 전미선. 앞의 책, p. 6.
- 9) 유홍준, 이태호, 앞의 책, pp. 276-279; 기준으로 추정 연대 작성.
- 10) 황옥철, 심재영. 앞의 책, pp. 129-130.
- 11) 隋書. 卷81, 列傳 第46, 高麗條.
- 12) 舊唐書. 卷29, 志第9, 音樂2, 高麗樂. 舞者四人推鬢於後以絳抹額飾以金墻. 二人黃裙襦赤黃袴極長其袖烏皮靴雙雙竝立而舞.
- 13) 李白集校注 卷6, 高句麗.
- 14) 三國史記. 百濟本紀, 阿莘王條.
- 15) 舊唐書. 卷199上 列傳 第149上, 東夷傳, 高麗條, 好圍碁投壺之戲人能蹴鞠.
- 16) 전경욱. 앞의 책, pp. 142-143.
- 17) 이태호 (2007). 앞의 책, pp. 86-111.
- 18)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2000).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p. 20, 51-52, 130.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2000).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I.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p. 17.
- 19) 정연학. 앞의 책, p. 651, 680.
- 20) 전호태. 앞의 책, p. 154.
- 21) 박춘순 (1998). 바지의 문화사. 서울: 민속원, p. 204.
- 22) 이애주. 앞의 책, pp. 132-133.
- 23)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앞의 책, p. 241.
- 24) 김은정, 임린 (2009). 역사속의 우리옷 변천사. 광주: 전남대학교출판부, p. 29.
- 25) 김미자 (1997).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 본 고구려 복식에 관한 연구. *고구려연구*, 4집, p. 516.
- 26) 舊唐書. 卷199 列傳 高麗條. 唯王五紙以白羅爲冠白皮小帶其冠及帶咸以金飾. 官之貴者則青羅爲冠次以絳羅插二鳥羽及金銀爲飾.
- 27) 이경희 (2007). 고구려 책(幘)에 관하여. *한국학연구*, 17, p. 129.
- 28) 晉書. 卷25, 志 第15, 輿服. 武弁, 大冠, 繁冠, 建冠, 簪冠. 惠文官.
- 29) 공석구 (1998). 안악 3호분 주인공의 관모에 대하여. *고구려 연구*, 5, pp. 174-178.
- 정완진 (2003). 고구려 고분벽화 복식의 지역적 특성과 변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94.
- 30) 이여성 (1947). 조선복식고. 서울: 백양당, p. 167.
- 31) 三國志. 魏志, 東夷傳, 高句麗條. 其公會衣服皆金繡金銀以自飾 大加主簿頭著幘如幘而無後 其小如著折風形如弁.
- 32) 정완진, 이순원 (1994). 고구려 관모 연구. *복식*, 23, p. 164; 각진 형태를 본떠 각관(角冠)이라고 함.
- 박선희 (2003). 한국고대복식. 서울: 지식산업사, p. 234; 절풍(折風)으로 봄.
- 정완진. 앞의 책, p. 149; 대가, 주부의 책(幘)으로 고구려 특유의 관모일 가능성이 높다고 봄.
- 33) 김진구 (1995). 절풍의 연구. *복식문화연구*, 3(1), p. 10.
- 권준희 (2003). 고구려와 신라의 절풍(折風)형 관모. *한복문화*, 6(3), p. 77.
- 34) 이경희. 앞의 책, pp. 134-145.
- 35) 임린, 김은정 (2009). 한국 고대 가계의 기능과 의미. *복식*, 59(2), p. 19.
- 36) 윤지원 (2000). 漢代와 고구려의 長袖衣 무용복 비교. *복식*, 50(5), pp. 41-42.
- 37) 박경자 (1981). 벽화리 고분벽화의 복식사적 연구. *복식*, 5, p. 47.
- 38) 김미자. 앞의 책, p. 503.
- 39) 홍나영, 이미현 (2005). 고구려 복식의 양식 분석-고구려 바지를 중심으로-. *복식*, 55(2), p. 84.
- 40) 정완진. 앞의 책, p. 64.
- 박춘순. 앞의 책, p. 21.
- 채금석 (2001). 수렵총, 수산리고분벽화에 나타난 복식 연구. *한복문화*, 4(3), p. 71.
- 41) 박춘순. 앞의 책, p. 208.
- 42) 김인숙 (1987). 바지榜(I)-바지 形態에 대한 小考-. *대한가정학회지*, 25(2), p. 27.
- 43) 홍나영, 이미현. 앞의 책, p. 89.
- 44) 전미선 (2005).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놀이문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49-50.